

는 평

## “현시와 표상”에 대한 논평

김 동 식 (옥 사)

정성호 교수는 그의 논문 “현시와 표상”에서, 현시라는 매우 독창적인 개념을 발전시킨 이론을 통하여 ‘마음의 대상에 대한 지칭에 관한 두 가지 상반된 이론’ 즉 ‘현시적 심리론(presentational theory of mind)’과 ‘표상론(representational theory of mind)’ 중에서 현시론이 표상론보다 더 적합한 이론임을 주장하고 있다. 논평자가 정 교수의 논문을 제대로 이해하였다면, 그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논제와 이유들을 들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 (1.0) 철학적 탐구는 진리의 탐구라기 보다는 결국 신비에 의지하거나 순환이나 무한소급에 빠지게 되는 딜레마를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신비의 빨을 잡는 쪽이 더 바람직한 선택이다.
- (1.1) 지칭의 문제를 설명하고자 하는 현시론과 표상론의 대결은 위에서 말한 딜레마의 한 전형에 해당되므로, 무한소급에 빠지는 표상론보다는 신비에 의지하는 현시론을 택해야 한다.
- (2.0) 현시적 대상지칭론은 “어떻게 마음이 마음 밖의 어떤 것을 대상으로 지칭하는가”를 현시(presentation), 기술적 지칭(descriptive reference), 인식적 지칭 등의 3단계로 설명한다. (cf. sec.2)
- (2.1) 위 3단계 중 인식적 지칭은 “마음이 관념의 틀을 벗어나 실재세계에 도달함을 보장해주는” 단계로서 인식 정당화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 (2.2) 기술적 지칭은 러셀(B. Russell)의 명제태도론 보다 치즘(R. Chisholm)의 귀속론(attribution theory)에 의해 더 잘 설명된다.
- (2.3) 그러나, 치즘의 귀속론은 기술적 지칭의 핵심인 개별화의 관계(identifying relation)를 가정할 뿐 잘 설명해내지 못하고 있다.

- (2.4) “개별화는 현시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지고 그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다.”
- (3.0) “현시는 속성에 의거하지 않고, 그 자체로서, 내용을 통하지 않은 지칭의 단계”인데, 그것은 더 이상 분석되거나 정의될 수 없는 개념이다.
- (3.1) 현시 개념(또는 행위)을 가정하면 릿셀, 크립키 등의 지칭이론의 난점들도 잘 설명될 수 있다.
- (3.2) 그러나, 현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는 다만 “‘그것이 그렇게 되도록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말 이상으로 할 수가 없다.” 또, 현시된 것이 어떤 종류의 존재인가는 규명하기 어렵다.
- (4.0) 표상적 대상지칭론은 “어떤 매개를 통하여 대상을 지칭하므로 삼원적 구조를 형성한다.”
- (4.1) 삼원적 구조를 지닌 표상론은 이원적 구조를 지닌 현시에 의하지 않고서는 무한소급에서 벗어날 수 없다.
- (4.2) 결국, “표상은 현시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마음의 대상에 대한 지칭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없[다].”
- (5.0) 표상론보다 현시론이 더 적합한 지칭이론이다.

이상의 여러 논의들은 궁극적으로 표상적 지칭론과 현시적 지칭론에 대한 비교 평가를 통해 현시론을 옹호하려는 쪽으로 짜여져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논평자는 그 두 이론 간의 우열을 가리는 일에는 별로 능력이나 흥미가 없다. 위와같이 요약된 정 교수의 논의 중에서 논평자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정 교수의 논문의 핵심적 주장을 담고 있다고 보이는 세 논점, 즉 주로 (1.0), (2.4) 및 (3.0)에 관련된 것들이다. 이 중 보다 더 포괄적인 것들에 대해 논의한 다음에 세부적·기술적인 것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논문의 전반적인 관점도 그러한 것으로 보이지만, (1.0)에서 정 교수가 취하고 있는 견지는 이른바 정초주의적(foundationalistic) 관점이다. 바꿔 말해서, 매우 직설적인 정초주의의 관점에 설 때에만, (1.0)의 전체부분이 하나의 딜렘마나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예컨대, 반정초주의를 주장하는 로티(R. Rorty)의 경우는 물론이고, 내적 실재론을 주장하며 노이라트식 보트로 형성된 합대 위에 승선해 있는 퍼트남(H. Putnam)의 경우나, 심지어는 정초주의와 노이라트의 ‘절충’을 도모하며 ‘완화된 정초주의’의 입장에서 서 있는 치즘의 경우에 있어서도 철학적 탐구의 ‘중착역’이 <신비 아니면 무한소급>의 양자택일

적 상황으로 설정될 수가 없다. 그 둘을 딜렘마로 보게 되는 것은 탐구나 지식에 있어서 분석이나 설명을 위한 아르키메데스적 준거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만 가능한데, 직설적 정초주의를 배척하는 관점에서는 그러한 준거점이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으며 또 필요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신비와 무한소급을 딜렘마로 여겨준다고 할지라도 무한소급보다 신비의 쪽을 택하는 것이 반드시 더 현명하다고 생각되지도 않을 것 같다. 예컨대, 자연과학에서 말하는 기본 개념들(세포, 원자, 소립자 등)은 분명히 더 설명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서 설명력을 지니고 있음은 물론이다. 오히려 그러한 것을 도입하는 쪽이 ‘생명체는 생명체 자체로 인식되어야 한다’라든가, ‘물질은 물질이다’라는 식의 신비나 미지수의 개념으로 설명되는 것 보다 더 낫다고 보인다. 일반적으로 학문 발달의 역사는 신비를 벗기기 위해 비록 무한소급의 여지를 안고 있는 개념일지라도 설명력이 더 큰 개념들을 받아들여 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설명력이란 반드시 ‘궁극적인 것’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설명되는 것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 교수의 주장처럼 표상적 대상지칭론은 3원구조를 지녀 무한소급을 벗어날 수 없고, 현시적 대상지칭론은 2원구조를 지녀 무한소급은 벗어나지만 신비를 벗어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지칭론에 대해 짧은 지식을 지닌 논평자로서는, 가부간에 단언하기가 어렵다. 다만, 표상은 결국 현시에 의거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납득하기가 어렵다. 표상론자들도 나름대로 설명을 시도한 다음에 궁극적으로 표상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설명을 신비에 맡겨버린다는 식의 대답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정 교수의 논지가 설명의 단계를 줄이는 한편 더 설명하기 어려운 것을 도입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정 교수의 논문의 핵심적 개념은 아무래도 현시일 것인데, 그는 현시를 설명하기 위해 치증의 존재론을 원용하고 있다: “지시적 지칭의 단계에서 지칭의 대상은 현시된 것이고, 그 현시된 것에 귀속된 속성은 예시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전자인 경우에 우리는 실재하는 개별체를 지칭하고 후자의 경우 허구적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특수체를 구성함에 의해서 지칭한다. 기술적 지칭의 단계도 같은 방식이 적용되고, 인식적 지칭은 그것에다 정당화의 조건이 첨가되어 이루어진다.” 이런 견해에 따르면, 현시는 지칭의 최초 단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속성에 의거하지 않고, 그 자체로서, 내용을 통하지 않은 지칭의 단계이다.

정 교수에 따르면 비록 현시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더 이상 설명될 수 없지

만, 현시는 브렌타노가 말하는 ‘의식에 나타남’과 마찬가지로 어떤 정신적 행위이며, 지칭뿐만 아니라 “모든 정신적 행위가 현시에 기초하여 있으므로 현시를 설명할 보다 더 기초적인 심리적 행위는 없[는]” 어떤 행위이다. 그런데, 이러한 현시는 지칭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하기 위해 꼭 전제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를 정 교수는 “개별화(identification)는 현시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그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다”는 데에서 찾고 있다. 왜 그런가?

어떤 것,  $x$ 가  $S$ 에 의해서 개별화되는 논리적으로 두 가지 가능한 방법이 있다. 하나는  $x$ 가 그 자신이 아닌 다른 어떤 것, 속성이나 관계에 의해서 개별화되는 것이다. 우리는 거의 모든 것을 이런 방식으로 개별화한다. ... 그런데, 속성이나 관계는 어떻게 개별화되는가? 다른 속성이나 관계에 의해서 개별화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은 계속될 것이고, 따라서 무한히 소급하거나 순환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무한소급이나 순환에 빠지는 개별화는 개별화를 이루지 못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 자신에 의해서 개별화되는 어떤 것을 가정하지 않을 수 없다. .... 그 자체로서 개별화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속성이 관여하지 않고 개별화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것이 그 자체로서 나에게 현시됨으로서만 가능하다. 당신이 나에게 현시될 때, 당신이 가진 어떤 속성이나 당신의 나와와 어떤 관계에 의해서 나에게 현시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단지 어떤 것으로 나에게 현시되는 것이다.(고딕체는 논평자가 덧붙임)

여기에서 정 교수의 논지는 다음 <가>-<나> 두 가지를 전제로 하여 결론 <다>를 이끌어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가> 대개의 경우 개별화는 속성이나 관계에 의해 이루어진다.

<나> 속성이나 관계의 개별화를 무한소급에 빠지지 않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현시가 전제되어야 한다.

<다> 모든 지칭의 기본이 되는 개별화는 어떤 것이 그 자체로서 현시됨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정 교수의 논문의 핵심적 주장을 담고 있는 <다>를 활용하여 현시적 대상지칭론이 구성된다. 현시된 것에 마음으로 품는(conceive) 어떤 속성이 부과될 때 특수체(particulars)가 포착되며 부과된 속성이 예시될 경우 개별체(individual things)로 지칭되어 지시적 지칭(demonstrative reference)이 설

명된다. 개별화와 속성의 귀속이라는 지향적 행위를 바탕으로 기술적 지칭 (descriptive reference)이 설명되고, 거기에 인식 정당화가 부가되어 인식적 지칭이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현시적 대상지칭론의 주요 열개인 것으로 보인다.

논평자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중 앞의 <가>, <나>와 <다>에 관한 것이다. 우선 <가>에 대해서는 별로 이견이 없다. 그러나, <나>와 <다> 그리고 <가><나>에서 <다>로 이르는 추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남는다.

(1) 우리가 어떤 것을 지칭하거나 개별화할 때 언제나 (속성이나 관계가 배제된) 그 대상 자체를 따로 지칭하고 (즉 현시하고), 그것에 연관된 속성이나 관계를 따로 나누어 지칭하는지가 의문이다. 정 교수의 이론에서는 마치 ‘발가벗겨진 어떤 것  $x$  그 자체’를 개별화하는 현시와, 임의의 속성  $P$ 나 관계  $R$ 을 개별화하는 현시라는 행위의 합성을 통해 속성  $P$ 를 지니며 관계  $R$ 에 놓여진 대상  $x$ 를 (논리적이든, 심리적이든, 형이상학적이든) 나중에 지칭하는 것처럼 전제되고 있다고 추정된다. (그러한 전제가 있어야만 <가><나>-<다>의 추론이 타당할 수 있겠기 때문이며, 심지어 <가>의 경우에도 현시 행위의 선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부인하게 되면 현시행위는 <나>의 경우에만 전제로서 요구될 뿐이며, 모든 지칭의 정초일 필요가 없게 된다.) 그러나, 정 교수가 앞 인용문에서 예로 든 것처럼 “당신이 단지 어떤 것으로 나에게 현시되는” 바가 어떤 것  $x$ 가 그 자체로 현시된 것이라면 그것은 설령 ‘어떤 것’에 대한 현시일 수는 있어도 이미 당신 즉  $x$ 에 대한 것일 수는 없다. 아무런 속성도 관계도 지니지 않은 어떤 것은 어느 것일 수도 있으므로 하필 그것이 당신일 필연성이 없으며, 더구나 당신 일 수도 없다. 그런 ‘어떤 것’은 나의 지칭행위에 의해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서 나의 관념이나 생각의 한 부분이거나 존재의 한 부분일런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당신은 아닐 것이다.

(2) 정 교수의 이론에 따르면, 대상 그 자체에 대한 현시나 어떤 속성이나 관계에 대한 현시 후에 비로소 개별화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이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그 과정이나 논리적 순서가 오히려 거꾸로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상 자체나 속성이나 관계에 대한 개별화는 고도로 추상화된 단계이겠기 때문이다. 속성이나 관계를 배제한 대상 그 자체를 아이들이 지칭하거나 생각한다는 것을 상상하기는 어렵다. 이 추정이 틀리지 않았다면 그러한 현시 행위를 한 후에 어린아이들이 지칭을 하나의 언어행위로서 성공시

키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들은 추상적인 현시행위 후 속성이나 관계를 부과하여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들 예컨대 자기 어머니나 친숙한 장난감 등을 현시행위 없이 지칭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언어습득의 과정과 지칭에 대한 논리적 설명은 다르다고 할런지 모르지만, 언어의 의미를 전체론적(holistic)으로 접근하려는 입장에서는 지칭의 문제도 구체적인 맥락에서 언어가 쓰이는 방식 전체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므로, 추상화된 현시를 바탕으로 구체화된 개별화가 (일종의 복합·합성과정을 통하여 나중에) 이루어지기 보다는 그와는 반대 방식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하고자 할 것이다.

(3) 전체론적 입장에서는 특히 <나>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나>는 개별화를 위한 정초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배후에 깔고 있다. 이는 마치 무한소급을 피하기 위해서는, 예컨대 존재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순수형상과 마찬가지로의 위상을 지닌 어떤 것이 꼭 존재(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일 것이다. 그래서, 지칭이라는 심리적 혹은 언어적 행위의 바탕에 말하자면 존재론에서의 순수형상에 비견될 어떤 행위가 모든 언어행위의 밑바탕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을 논증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언어행위나 심리적 행위를 여러가지로 뒤엎킨 복합적 작용이나 과정이라고 본다면 그러한 주장은 빗나간 것이거나 '알 수도 없는 어떤 것을 끌어들이는 일'에 해당될 것이다. 정 교수 스스로도 현시는 하나의 신비로 남겨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4) <가><나>에서 <다>로 이르는 추론의 논리적 필연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 만일 정 교수가 주장한대로라면 현시는 속성이나 관계를 어떻게 개별화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요청되거나 전제되는 것이지, 대개의 경우에 발생하는 개별화의 경우 즉 <가>에서는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가>의 경우에도 현시가 개별화의 밑바탕이라고 주장하여 결과적으로 현시가 모든 지칭행위의 최초행위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상을 지칭하거나 개별화할 때 우리가 그 대상을 '발가벗겨진 대상 자체'와 그것의 속성이나 관계로 늘 분석하는 행위를 통하여 달성하는 것(그러한 일의 가능성이나 실제 또는 필연성)에 대한 논증을 추가하여야 하리라고 본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위의 의문점 (1)과 연관된 문제일 것이다.